

특집

증대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쿼터량을 초과하여 원유가 과잉생산된 경우의 분유생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원유가격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우유 및 유제품의 우수성을 적극홍보하여 국내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대를 꾀하고 해외시장의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낙농산업의 안

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집유조합의 지정 및 집유 권역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유가공업체간 원유의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다각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일만구천호 낙농가의 낙농진흥회의 발족과 함께 바라는 바가 크므로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승화시켜 낙농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낙농진흥회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다. ㉔



이 종 영
본회감사

반대의 목소리도 반영 단합의 계기로 삼자

진흥회설립과 운영상에 모든 문제는 난제에 난제이지만
우리 낙농인이 꼭 넘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늦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법개정에 반대입장에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법개정을 반대하던 일부지역 낙농가도
두함께 참여해서 이나라 낙농사에 큰 전환점이 되도록
모두 참고 인내하며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자.

어제는 몇 농가가 오늘은 또 몇 농가가 목장문을 닫고 폐업을 하면서 서둘러 낙농업을 떠난는지..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볼수 있는 쓰러져만 가는 낙농업에 현상이다.

이대로라면 이땅에 몇 농가의 낙농가가 존재하려는지 의문이 되는 때에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었다.

10여년을 끌어온 낙농진흥법이 184회 국회에서 제정된지 30년만에 개정을 한 것이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반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선 눈앞에 작은 이익이라

고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우리 낙농산업에 항구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개정된 법 안에서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 할수 있도록 노력 해야만할 것이다.

법개정이 늦어져서 아쉬움이 있지만 장고에 시간을 두고 법개정에 관해서 열띤 찬반토론을 했고 토론장에서는 고성이고 오고가지 않았는가. 이 모두가 이나라 낙농산업에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에 큰목소리였다.

이제 낙농진흥법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우리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개정후의 낙농진흥회 설립 및 운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먼저 낙농진흥회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유업체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에서 고루 위촉되어서 위촉된 위원회에서 집유방법, 원유검사 공영화방법, 원유분배방법, 우유에 대한 홍보방법 등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해서 최종결정사항을 전국을 순회하며 개정된 법률내용, 시행방안에 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낙농가에 의견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

은 새로결정해서 전국에 낙농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방안이 진흥회에서 나오기 바란다.

특히 이과정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반대 입장에서 우려했던 원유에 자유로운 판매권 박탈에는 원유에 안정적인 판매보장과 수익보장으로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낙농가에 전가되는 운영상에 필요한 진흥회의 모든 비용은 어느 한쪽이 아닌 생산자 단체, 유업체 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좌우 어느쪽도 치우치지 말고 운영하게 하고 특히 원유검사 제도가 공정성을 유지하게하여 검사제도에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원유수급에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방관만 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유의 수급 균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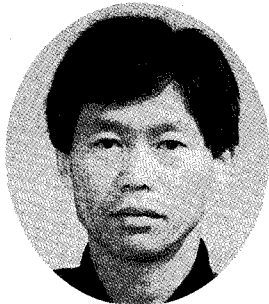
원유에 계약생산제 도입시 신규농가 신규유가공업체 참여방법이 제도적으로 막는 처사에는 우유소비가 매년 증가되는 점과 폐업목장의 생산할당량을 자유로히 농가간에 승계하게하고 소비증가량 만큼 신규유가공업체 참여를 허가해서 유업체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작년 10월에 있던 유업체간의 감정싸움으로 이나라의 낙농업에 먹칠을 하는사태로 먼저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만 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진흥회설립과 운영상에 모든 문제는 난제에 난제이지만 우리 낙농인이 꼭 넘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늦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법개정에 반대입장에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법개정을 반대하던 일부지역 낙농가도 모두함께 참여해서

이나라 낙농사에 큰 전환점이 되도록 모두 참고 인내하며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자.

지금 우리 낙농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농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고 까다롭기만해진 원유의 위생등급검사제도며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는 송아지와 도태우 가격, 열악한 조사료 사정, 금년 여름에는 벗짚도 Kg에 300원 했으며 치솟기만하는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야속할 정도로 조여만 드러오는 환경부처의 강화된 축산분뇨처리법률 그러나 우리는 이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열심히 낙농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낙농진흥회의 새로운 활동으로 희망찬 내일의 낙농산업이 이땅에서 꽃피우기 바라며 진흥회 설립과 활동에 큰 기대를 하는바 크다. ☺



김 태 호
본회이사

농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상대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특히 낙농업은 젖소라는 특이한 동물과 그 먹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식물(초지및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그야말로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힘이든다.

지금까지는 힘을 들이지만 다른 농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소값이 좋았던 80년대 초와 90년대 초에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면 낙농업을 하려했고 선망했다. 소를 좋아하거나 낙농업 긍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농업을 시작하였다. 심지어 목장에는 주인은 없고 목부를 두어 운영하고 주인은 한달에 1~2번 손님처럼 와보는 목장도 많았다.

요즘은 그런 목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주인이 직접 경영하던 목장들도 사양관리 개선이나 종축 개량 등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리 하

우리의 낙농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국제적 경쟁에서 선진국 낙농가와 대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꼭지점으로 궤도를 수정, 그들보다 몇배의 투자
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뒤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낙농가도 낙농업이야말로 환경산업이며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배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수 있도록 노력하자.